

## 〈제9회 일본경제포럼 개최결과〉

1. 개최일시 : 2016. 4.15(금) 13:00~18:00
2. 개최장소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
3. 주     제 : 혼돈의 세계경제, 한중일 시장전망과 대응방안
4.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경닷컴
5.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00~	개   회	사회 :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13:00~14:00 (60분)	세계경제 불황원인과 한일 대응책은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4:00~15:00 (60분)	일본경제 어디로, 아베노믹스 중간평가	최강식 부산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5:00~16:00 (60분)	마이너스 금리시대의 일본 소비시장 전망	최상철 일본 간사이대학 교수
16:00~17:00 (60분)	저성장 시대 맞은 한국 소비시장 전망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00~18:00 (60분)	중성장 시대,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윤향진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팀장
18:00~	폐   회	

5. 참가자 :計 82명 (협회 회원사 33명)
  -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 KB금융그룹 허   인 부행장,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 네오티스 권은영 사장 등

## 6. 신문기사

### ① 이종윤 부회장 "일본 기술력과 한국 추진력 결합해 경제 불황 극복하자"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일본경제포럼 강연자로 나선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변성현 기자

"일본의 기술력과 정보력, 자본력이 한국의 추진력과 만나면 상당히 큰 보완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공급 체인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제3세계 인프라 개발 협력을 도모하면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회 한경 일본경제포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중일 시장전망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 부회장은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비정규직 증가와 중소기업 체질 약화 등으로 점점 내수가 축소됐다"며 "여기에 더해 중국 경제, 선진국, 신흥국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한국경제 불황이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적인 내수 축소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을 메울 수 있는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그는 한국의 과제로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지나친 중국 경제 의존 탈피, 비정규직 노동자 기능교육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예비취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노동 생산성을 높여 경영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또 최근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이 힘을 모으는 것은 양국 발전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쟁보다는 협력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한경닷컴과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mailto:rrang123@hankyung.com)

## ② 최강식 교수 "일본 '종신고용 신화' 깨지고 있다“



15일 여의도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최강식 부산대 교수. / 변성현 기자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며 일본의 종신고용 문화가 상당 부분 깨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성장둔화와 청년층 일자리 문제 때문에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최강식 부산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회 한경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서 기업 생산시스템, 비공식 제도 등 독특한 일본식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일본 기업은 미국식 수직적 조직과는 다른 수평적 조직으로 '배치전환(job rotation)'을 통한 다기능공 중심으로 발전했다"며 "따라서 경쟁우위가 없는 분야는 환경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일본 기업을 평가했다.

이어 "전문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화학, 약품, 소프트, 항공기 산업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에선 잘 쫓아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반도체 같은 성숙된 산업에선 강점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를 겪으며 일본 기업 형태도 부분적으로는 변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형 기업시스템의 변화, 고용의 유동화와 비정규직 증가, 은행의존 저하와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율 증가가 나타났고 기업의 수익율을 중시하는 미국형 시스템도 어느정도 갖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대표되는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노믹스'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면서도 "이에 앞서 일본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 시스템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산업, 금융, 노동시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한경닷컴 기자 [sjhjsol1234@hankyung.com](mailto:sjhjsol1234@hankyung.com)

### ③ 이정희 교수 "저성장시대 소비환경 변화…혁신해야 살아남아"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사진)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성장 정체와 가계부채 증대로 소비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양질의 상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실속형 가치소비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은 지난해 2.5%로 2010년 대비 3.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1207조원으로 약 43% 늘었다. 1998년과 비교해 2012년 출생률도 25% 가량 줄어들어 하락세가 빠르다.

그는 "같은 기간 일본의 출생률은 13.3% 줄었다. 우리나라 하락세가 훨씬 빠르다"면서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여년 격차를 두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저성장시대에 사회 전반적으로 가격파괴 현상이 확산됐다"며 "우리나라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저가로 무장한 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앞으로 가격경쟁이 더욱 심해져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mailto:sangjae@hankyung.com)

#### ④ 최상철 교수 "디플레 시대, 일본 우량기업이 답이다"



15일 여의도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최상철 일본 간사이대학 산학부 교수. / 변성현 기자

최상철 일본 간사이대 교수(사진)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서 마지막 강연자로 무대에 올랐다.

최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시대의 일본 소비시장'을 주제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지지를 받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와 아베 총리는 금리 인하가 기업 설비투자과 소비 증대를 가져와 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실은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본기업들의 연금부채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연금부채가 확대되고 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적자를 내면 유력 소비층인 시니어(노년층)의 소비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소비 붐으로 잠시 경기상승 국면을 보였으나 다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시대로 역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전략으로 안주머니가 두둑한 일본 소비자의 니즈(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다이소와 도리기족, 아이리스 오야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저가 상품 및 소비자의 감성을 공략하는 '고토(감성적 산물) 마케팅' 경영 등을 통해 디플레 시기에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혁신적 일본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한국 기업들의 불황 탈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한경닷컴 기자 [sjhiso1234@hankyung.com](mailto:sjhiso1234@hankyung.com)

⑤ 윤항진 팀장 "중국 증시 저점…올해 3500선까지 반등할 것"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9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 팀장 / 사진 변성현 기자

"현재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초 급락해 저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는 가정 하에 올해 35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팀장(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9회 한경닷컴 일본 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서 "중국 증시는 앞으로 2~3년 내 급락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팀장은 '중성장시대,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국 증시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했다.

그는 "연초 2600선까지 떨어졌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최근 저점 대비 15% 오른 3000선으로 반등했다"며 "올해 중국 증시는 완만한 우상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 국내총생산(GDP) 수치와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때 GDP 수치는 낮지 않으며 당분간 경기 둔화세는 지속될 것이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윤 팀장은 진단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7%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팀장은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경기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하반기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시의 불안요인이 안정화됐다는 게 그의 분석. 윤 팀장은 "지급준비율 인하,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 증가율 상향으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비관적 우려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었던 위안화 환율도 글로벌 정책 공조 하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국의 실제적인 펀더멘탈(기초체력) 개선까지는 최소 1~2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중국 경기의 관건은 구조조정의 여부"라며 "구조조정과 같은 경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속제로 정부의 개선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말부터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mailto:rrang123@hankyung.com)